

‘Springtime à la Carte’의 번역에 나타난 의미, 통사, 텍스트의 기능 평가

박 옥 수
(영남대)

1. 서문

번역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객관적, 과학적 번역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번역 작품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번역 평가자들은 번역물에 드러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번역가의 번역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작업을 해왔다. 번역 평가의 접근 방식은 초기의 해석학적 방식에서 시작해서 언어학적 접근법으로 옮겨갔다. 언어학적 접근법은 미시적 등가 차원에서 화용론까지 포함되었으며, 이어 텍스트 유형에 근거한 기능주의 방식, 기술 번역학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적 접근 방식의 한 유형인 줄리아나 하우스(Juliane House)의 ‘기능적, 실용적 접근 방식(Functional-pragmatic model)’을 소개하고, 그 방식을 적용해서 오 헨리의 작품 ‘Springtime à la Carte’의 원천 텍스트(ST)

와 네 편의 시대별 목표 텍스트(TT)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4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네 편의 TT의 현상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어떤 번역 전략을 세웠는지 살펴본다. 개별 번역물의 번역 현상과 번역자의 번역 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미래의 번역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방식은 영어 ST와 우리 말 TT를 비교 분석 후 평가하고, TT의 현상을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TT 평가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ST 및 TT를 세 가지 차원, 즉 의미 차원, 통사 차원, 그리고 텍스트 차원으로 분류했다. 하우스의 ‘번역 평가의 기능적 실용적 모델’에서 의미, 통사, 텍스트 분석 방식의 용어를 차용했으며, 이 모델의 방식을 적용했다.

2. 하우스(Juliane House)의 기능적, 실용적 모델

번역 비평가들은 번역물이 주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번역가와 TT 사이에 있었던 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해석학적 평가 방식이 있었다. 주관적이고, 직관력에 근거한 평가가 번역자, 작가, 언어학자 등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그들의 지식, 경험, 직관력 등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으며, 문학 번역에서 주로 행해졌다¹⁾. 이 방식은 번역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과정이었으며, 번역 평가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은 될 수 없었다.

언어중심의 접근 방식은 1990년 이후 실용 언어학, 사회 언어학, 화용론까지 포함하는 번역 연구로 확대되었다. 번역은 단지 언어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하우스의 언어적 기능적 등가를 들 수 있다. 하우스는 마이클 헬리데이(Michael Halliday)의 체계적, 기능적 이론에 근거해서 번역평가에서 소위 기능적-실용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의 기본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번역은 이중의 구속’(2001:134)으로 원

1) 해석학적 방법에 의하면 번역은 주관적인 해석과 변화에 근거한 개인의 창조적 활동이다.

문에 대한 구속과 잠재적 수용자와의 소통 조건에 따른 구속이라는 것이다. 이 ‘이중 구속’은 하우스가 주장하는 ‘등가 관계’의 기본이다. 번역문이 단순한 원문의 재생산이 아니라 원문과 잠재적인 수용자의 의사소통 상황의 영역에서 텍스트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하우스는 헬리데이의 세 개념, ‘장(場, Field)’, ‘관계(Tenor)’, ‘매체(Mode)’를 적용한다(House 137-39). ‘장(場)’은 의사소통의 목적과 내용을 말하고, ‘관계’는 텍스트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자의 출신과 태도, 사회적 역할 관계, 사회적 태도 등을 말한다.

담화에서의 ‘대인적 기능’, 즉 담화 ‘관계’는 독자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기능의 담당자는 화자이다. 화자의 역할은 소설세계에서 그가 인식하는 내용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전달 방식이야말로 텍스트의 특징을 규명하고,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담화 ‘매체’는 텍스트가 문어체인지, 구어체인지 혹은 저자가 글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일컫는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언어 전달 행위가 일어날 때 담화의 ‘장’과 담화의 ‘매체’, 담화의 ‘관계’에 따라서 언어형식상 상관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언어 사용역(Register)’이라고 한다.

하우스는 언어사용역의 상위 개념을 ‘장르(Genre)’로 구분했는데, 장르는 어떤 텍스트가 일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장르’는 ‘언어사용역’의 내용적 측면이며, ‘언어사용역’은 ‘장르’의 표현적 측면이다. ‘언어 사용역’과 ‘장르’가 결국 개별적 텍스트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다.

기능적-실용적 등가에서는 의미의 세 가지 측면, 즉 의미론적, 실용론적, 텍스트적 측면이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적절한 번역은 실용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등가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TT는 ST와 기능적 등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기능이란 특정한 상황 문맥에서 텍스트를 사용,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상황의 문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우스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텍스트를 세 가지 주제인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매체’로 분류해서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 두 가지 유형의 번역 양식

을 제시한다. 즉 ‘외현적 번역(overt translation)’과 ‘내재적 번역(covert translation)’이다. ‘외현적 번역’은 ST가 원천 언어(SL)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번역 양식이다. 즉 ST가 그 텍스트가 통용되는 사회의 독자만을 겨냥해서 ST 고유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TT의 독자들은 ST의 내용을 명백하게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TT의 독자들은 ST의 독자들이 누리는 효과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결국 문화적 재해석 없이 직접적인 번역을 하는 것으로 설교나 정치적 연설, 문학 작품 등의 번역에 ‘외현적 방식’의 번역이 적합하다.

‘내재적 번역’은 ST가 그 독자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기능적 효과를 TT를 읽는 독자들도 누릴 수 있는 번역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의 TT는 번역의 분위기를 풍기지 않고, 마치 원본 서적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방식의 번역은 ST가 원천 문화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번역 방식이며, 광고나 기술 번역, 신문 잡지 등의 번역에서 적용된다. 이 경우 원천 문화가 번역으로 동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여과장치(Cultural Filter)’²⁾가 필요하게 된다.

하우스의 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담화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작가와 독자의 교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의 정서적 관계나 신분 관계가 번역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에 관한 분석은 하우스 이론의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텍스트 차원의 분석에서 담화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3. 데이터 분석

이 논문 데이터 분석의 특징은 ST와 TT의 개별 분석, 그리고 원문의 내용(의미 차원) 및 형식 분석(통사, 텍스트 차원), 미시적 접근(의미, 통사 차원)과

2) 문화적 여과장치란 ST와 TT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규범과 인습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ST와 TT의 비교 분석에서 두 사회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근한 방식’의 번역에서 기능적 등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T에 어떤 변화가 가해지기 전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House 142)

거시적 접근(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3.1. 분석 방식

의미 차원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어휘’³⁾를 대상으로 단어 대 단어, 혹은 단어 이상의 차원(구, 절, 문장)을 분석했다. 통사 차원에서는 복문(復文)의 번역 방식을 분석했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텍스트의 서술 방식과 담화 관계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는 ST의 특징적인 부분, 즉 저자가 직접 독자에게 소통을 시도하는 서술 부분을 분석했다. 또한 작가와 독자 사이의 관련성, 작중 인물 간의 친밀도를 점검했다.

분석 후 평가는 서술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ST에서 대상 부분을 선정 후 ST와 TT를 각각 분석해서, 서술했다. 이 논문의 평가 범주는 ‘개별적 비평’이다. ‘개별적 비평’에서 하나의 ST에 두 개 이상의 TT를 비교하는 경우 ‘외적 용인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전현주 2008: 224).

‘외적 용인성’의 경우는 표절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 그 구체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텍스트 선정 과정에서 1970년 상서각 출판사의 번역을 제외한 것은 1967년에 출판된 TT2의 번역과 제목과 문구 등 표절로 의심되는 유사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평가 방식은 ‘텍스트 중심’으로, 서술방식은 TT의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적 서술 방식’과 ‘비평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능하다면 ‘비평적 서술 방식’을 최소화하고, 드러난 현상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⁴⁾

3.2. 분석 대상 텍스트

ST는 The Best Short Stories of O.Henry (1899/1945. New York: Random House 39-45)에 수록된 ‘Springtime à la Carte’ 이며 TT는 1960부터 2007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번역자 및 출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3)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된 어휘”(이근희 2005:245).
- 4) “학술적 번역비평에서는 ‘기술적 서술 방식’과 ‘비평적 서술 방식’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전현주 2008: 227).

번역물 (제목)	번역자	출판연도	출판사
TT1(메뉴 위의 봄)	김신혜	1960년	동학사
TT2(봄철에 생긴 일)	황동규	1967년	평화 출판사
TT3(식탁에 찾아온 봄)	김옥동	2003년	이레
TT4(봄날의 메뉴)	김정란	2007년	대교베텔스만

표 1. 분석 대상 텍스트

3.3. 분류 용어

이 논문의 분류 방식에 적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의미의 분석에서 사용된 분류 용어는 ‘직역’, ‘의역’, ‘보침’, ‘축약’, ‘주해 설명’, ‘생략’이다. ‘직역’은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옮긴 경우이다. 그러나 원래의 구문 형식을 고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의미를 첨가하거나 원문의 표현을 생략하지 않았다면 ‘직역’으로 분류했다. ‘의역’은 번역자가 원문의 사전적인 의미 보존보다는 TT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이다. ‘보침’은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의 의미 외에 다른 표현을 첨가한 것이며, ‘축약’은 원문의 일부를 빼고, 번역한 것이다. ‘생략’은 원문을 TT에서 빼어버린 경우이다.

통사 분석에서 ‘직역’은 원문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원문의 구조와 번역문의 구조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⁵⁾. ‘의역’의 경우는 TT가 원문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문장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문장 속의 절이 원래의 품사적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원문의 구두점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텍스트 분석에서 ‘직역’과 ‘의역’의 구분은 ST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옮겼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외현적 번역’과 ‘내재적 번역’은 각 차원의 번역을 위의 용어로 분류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5) 번역문의 구조가 같다는 것은 원문의 한정과 서술의 관계 등이 번역문에도 그대로 옮겨 오거나 구두점을 그대로 지키거나, 원문의 품사가 번역문에도 같은 품사로 옮겨 온 것을 의미한다.

4. ST의 분석

원문은 새리라는 여주인공의 고달픈 뉴욕 생활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뉴욕의 한 음식점 메뉴를 타이핑, 해주는 일을 한다. 그녀에겐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월터가 있었지만 그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그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타이핑한 메뉴 덕분에 연인 월터와 재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4.1. 담화 관계

오 헨리는 단편 소설을 '인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헨리의 다른 작품이 그렇듯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도시의 아가씨 새리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다. 원작에서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 작품 내의 인물 사이의 관계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 주인인 슐렌버그가 새리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는 오 헨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담고 있는 애정을 보여준다. 새리와 슐렌버그 사이의 직접적 대화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메뉴판을 타이핑해주기로 한 새리에게 가능하면 친절히 웨이터를 시켜 사라의 집에 직접 음식을 보내준다”(TT3)는 표현을 보면, 슐렌버그가 가난한 뉴욕 아가씨 새리를 배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대화는 새리와 월터 사이에서만 전개된다.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는 작품 속의 연인 관계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 작품은 서술 방식에서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소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관계에 관한 기능과 연관성을 갖는다.

4.2. 담화 매체

이 작품의 텍스트 특성은 작가가 독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⁶⁾는 독자에게 직접 소설의 구성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6) 화자는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작품에 개입한다. 내적 화자는 대인적 기능이 작품 속의 인물에 의해 이행되고, 외적 화자는 제 삼자로서 작품에 대해서 서술한다.

던지기도 하고, 새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서 외적 화자는 관찰자로서 픽션 속의 사건, 행위, 배경, 등장인물, 때로는 그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까지 언급한다. 작가는 독자를 소설 속에 끌어들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품에 참여하게 한다.

반 루벤 즈와트(Leuven-Zwart, K. M. van)는 화자와 관찰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적화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작품 세계의 거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내적화자가 소설과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독자에게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외적화자의 존재감은 소설 세계와 독자와의 거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외적 화자가 소설 세계에 관여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면 독자는 그와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독자를 직접 호칭하는 표현은 외적 화자가 작품에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Leuven-Zwart 176-7)

이 작품은 허구의 장르로서 글을 전개하다가 외적 화자가 작품에 관여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한다. 이런 매체 전개의 방식은 작품 전체에 흐르는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 이 부분의 번역에서 번역자가 어떤 번역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TT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문을 그대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인 단편 소설의 유형에 맞춰서 번역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5. TT의 분석

TT의 분석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분석을 통해서 의미의 변화, 그리고 구문과 텍스트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고, TT 독자와의 소통의 문제를 논의한다.

5.1. 의미 차원

‘의미 차원’의 분석에서는 단어와 구, 절, 문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⁷⁾

1) To account for this you will be allowed to guess that the lobsters were all out, or that she had sworn ice-cream off during Lent, or that she had ordered onions, or that she had just come from a Hackett matinee.

이 부분의 해석은 TT1 “헤케리 주간공연의 연극”, TT2이 “싸구려구경”, TT3 “헤킷 극장에서 낮 공연”, TT4 “헤킷 극장에서 슬픈 조조 영화” 등으로 TT2의 번역은 대상 독자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번역을 하고 있다.

2) The gentleman who announced that the world was an oyster which he with his sword would open made a larger hit than he deserved.

TT1, TT2, TT4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TT3의 “과연 생각 이상으로 정곡을 찌른 표현이었다”는 이 텍스트의 원전에 대한 주해를 덧붙임으로써 TT 독자의 텍스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served as fast as you throw the five baseballs at the coloured gentleman's head)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표현이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신사의 머리에 다섯 개의 야구공을 던지는 게임”처럼 빨리 나온다는 의미. TT1 (“그것은 다섯 가지 음식이 나오는 정식이었는데, 신사의 색깔 머리에 공을 다섯 개 던지자마자 가져 온다”)과 TT2 (“흑인 신사 머리에 야구 볼 다섯 개를 던지면 금시 나오는 음식과 마찬가지로의 싸구려 음식”)의 의미 해석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며, TT3 (“그런데 그 요리는 흑인 신사 인형 머리 위에 야구공 다섯 개를 던지는 게임만큼이나 빨리 나왔다”)과 TT4 (“흑인 신사 인형 머리에 야구공 다섯 개를 던지는 게임만큼이나 빨리 나온다”)가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 오 헨리가 이 작품을 쓸 무렵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텍스트로서 언어적 의미로는 후자의 번역이 맞다. 모든 번역자가 독자를 위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4) Men began to make thirty-day notes to buy Easter dresses.

TT1과 TT2는 직역을 TT3와 TT4는 의역을 하고 있다. began to make thirty-day notes 를 TT3의 경우는 “벌써부터 마음 속으로 돈을 절약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로, TT4의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대책을 세웠다”로 번역했다. TT1과 TT2의 경우 똑같이 “연수표(延手票)⁸⁾를 떼기 시작했다”로 번역했다. 네 편의 TT가 각각 그 시대 독자층의 문화에 맞는 표현을 찾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One afternoon Sarah shivered in her elegant hall bedroom;

elegant hall bedroom 의 번역이 각각 다르다. TT1은 “우아한 침실” TT2 는 “아담한 침실”, TT3은 “복도 끝을 막아 만든 작고 멋진 침실”, TT4는 “셋방”이라고 표현했

7) 의미 차원의 단위에는 밑줄을 그어서 표현했고, 밑줄이 없는 부분은 표현 전체가 ‘의미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8) 실제의 발행일보다 뒷날을 발행일로 정하는 수표

다. TT1과 TT2, TT4는 hall bedroom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침실” 혹은 “방”으로 번역했다.

6) Some must have the flowering crocus, the wood-starring dogwood, the voice of bluebird--even so gross a reminder as the farewell handshake of the retiring buckwheat and oyster before they can welcome the Lady in Green to their dull bosoms.

TT1은 the Lady in Green 의 번역을 생략했고, TT2는 “녹의의 여인”, TT3은 “초록색 옷을 입은 귀부인” TT4는 “초록의 여신”으로 번역했다.

7) But to old earth's choicest kin there come straight, sweet messages from his newest bride, telling them they shall be no stepchildren unless they choose to be.

TT1과 TT2는 직역을, TT3과 TT4는 의역이다. TT1과 TT2에서는 stepchildren 을 “서자”와 “양자”로 옮겼지만, TT3과 TT4는 그 의미를 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고려해서 해석했다.

8) To-day there were more changes on the bill of fare than usual. The soups were lighter;

lighter 의 해석을 TT1은 “묽어지다” TT2는 “담담하다” TT3은 “산뜻하다” 로 의역을 했으며, TT4는 “맑아지다”로 번역했다.

9) cats on the back fences slowly retreated toward Mukden.

TT1과 TT2는 Mukden 을 “봉천”으로, TT3은 “평톈”으로, TT4는 선양”으로 옮겼다. TT1 (“봉천으로 퇴각하는 러시아 군대처럼”) 과 TT3 (“러일전쟁 때 평톈으로 퇴각 하던 러시아 군대처럼”), 그리고 TT4 (“중국 선양으로 퇴각하는 러시아 병사들처럼”)는 보충 지식을 추가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 했다. TT3은 Mukden 의 지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주로 표기했다. Mukden은 봉천(奉天)으로 오늘날 선양(瀋陽)을 말한다.

10) She got out "The Cloister and the Hearth," the best non- selling book of the month, settled her feet on her trunk, and began to wander with Gerard.

TT1은 “암자와 난로” TT2는 “수도원과 가정” TT3은 “수도원과 난로” TT4는 “수도원과 벽난로”라고 책의 제목을 옮겨 놓았으며, TT3의 경우는 주해로 저자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TT1과 TT2의 번역은 책의 고유한 제목이므로 적절치 않다.

11) "Why, there's no W in dandelions," said Sarah, in surprise.

이 문장은 TL(목표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문에서의 ‘이탈’이 발생한다. 이 경우 W를 그대로 옮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번역자가 모두 그대로 직역을 해놓았으며,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TT1, TT2, TT4의 번역은 W 의 번역을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놓은 반면 TT3은 “더불유 철자”라고 옮겨 놓았다.

12) "DEAREST WALTER, WITH HARD-BOILED EGG."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언어 유희의 표현이다. 문장의 형태가 아닌 함축적인 원문을 네 번역자는 각각 다르게 해석해 놓았다. TT1은 “그리운 월터. 쥘레다 달걀 붙임” TT2는 “친숙한 계란이 든, 나의 사랑하는 월터” TT3은 “사랑하는 월터에게, 삶은 달걀로 만든 요리”, TT4는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달린 그리운 월터”라고 옮겼다.

5.2. 통사 차원

단지 의미뿐만 아니라, 번역자는 구문의 번역 방식에서도 충실성과 가독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복문의 문장이 TT의 의미전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 대상 ST의 견본 번역을 함께 소개한다. 견본 번역은 ST에 대한 충실성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했다.

13) She knew no more shorthand than if she had been a graduate in stenography just let slip upon the world by a business college.

“그녀가 속기 전공 졸업자였다면 그저 실업전문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막 나온 정도 만큼만 속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었다.”

TT1은 직역이지만 원문과는 다른 뉘앙스를 준다. TT2 역시 직역이다. 이 번역은 문장 구조는 그대로 옮겨 놓았지만 의미 전달에는 실패했다. TT3은 ST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나, TT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원래 문장의 구문을 고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달리 첨가하거나 생략한 부분은 없다. TT4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문과는 다른 의미가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의 번역은 네 편의 TT가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TT3의 의미전달이 적절하다.

14) It was written in an almost unreadable script neither English nor German, and so arranged that if you were not careful you began with a toothpick and rice pudding and ended with soup and the day of the week.

“그것은 영어인지 독어인지 거의 읽기 어려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고, 주의하지 않으면 이쑤시개와 라이스 푸딩으로 시작해서 수프와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로 끝나도록 나열되어 있었다.”

TT1은 직역으로 the day of the week 의 부분의 번역을 생략했으며, TT2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고, the day of the week 를 “연월일”로 번역했다. TT3과 TT4가 모두 the day of the week 를 “그날의 주요 요리”로 옮겨 놓았다.

15) She was to furnish typewritten bills of fare for the twenty-one tables in the restaurant-- a new bill for each day's dinner, and new ones for breakfast and lunch as

often as changes occurred in the food or as neatness required.

“그녀는 그 식당의 스물 한 개 식탁의 메뉴를 타자로 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 매일매일 저녁 식사에 새 메뉴판과 점심과 저녁에는 음식에 변화가 생기거나 산뜻하게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새 메뉴판을 갖다 주기로 한 것이었다.”

TT1과 TT2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줄표로 연결된 부분을 직역했으며, 가감하지 않았다. TT3은 줄표의 설명 부분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번역에서는 줄표 부분을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분류해서 번역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없는 부분(“계약인즉슨”)을 보충해서 가독성을 살리려 했다. TT4는 줄표 부분을 두 개의 문장으로 분류해서 번역했으며, 가감하지 않았다.

16) In return for this Schulenberg was to send three meals per diem to Sarah's hall room by a waiter--an obsequious one if possible--and furnish her each afternoon with a pencil draft of what Fate had in store for Schulenberg's customers on the morrow.

“대가로서 쉐렌버그 씨는 하루에 세끼의 식사를 웨이터-- 가능하면 나긋나긋한--를 시켜서 사라의 방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일 오후 그녀에게 쉐렌버그의 고객들을 위해서 다음 날 어떤 음식(운명)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연필로 적은 초고를 제공하기로 했다.”

TT1, TT2, TT3의 번역 텍스트의 문장 구조는 직역의 방식이다. TT4는 줄표를 생략하고, 본문에 삽입시켰으며,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의역의 방식을 취했다. 통사 구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fate의 번역 방식도 흥미를 끈다. TT1은 “운명의 신”으로, TT2는 “운명(메뉴)”으로, TT3과 TT4는 “요리 품목”으로 번역했다.

17) Schulenberg's patrons now knew what the food they ate was called even if its nature sometimes puzzled them.

“쉐렌버그의 단골들은 비록 그 음식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그들이 먹는 음식의 이름만은 알게 되었다.”

이 원문에서는 nature의 해석이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문장의 번역 구조는 TT1과 TT2가 직역의 형태를, TT3과 TT4가 의역의 형태를 보인다. TT1은 “음식의 성질”, TT2는 “요리의 내용”으로 번역했으며, TT3은 “어떻게 요리된 것인 줄”로 의역했다. TT4는 “원재료”로 번역했다.

18) And Sarah had food during a cold, dull winter, which was the main thing with her.

“그리고 사라는 춥고, 음산한 겨울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것이 그녀에겐 중요한 것이었다.”

TT1은 which 이하를 “그것은 그녀에게 중대한 문제였다”로 직역했고, TT2는

which 이하를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로 직역했다. TT3은 which 이하를 “무엇보다도 춥고 을씨년스러운 겨울 동안 밖에 나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로 풀어서 해석했으며, TT4 역시 which 이하를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수확이었다”로 의역했다.

19) Lamb, that lately capered on the greening hillsides, was becoming exploited with the sauce that commemorated its gambols.

“최근까지도 초록빛 언덕 위로 뛰어다니던 양이 그 뛰는 모습을 기념하는 소스와 더불어 요리되고 있었다.”

TT1은 원문대로 직역했으며, TT2는 원문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번역이다. with the sauce that commemorated its gambols 를 “그 희롱도 눈에 선하게 사탕에 저려져서”로 오역되어 있다. TT3은 원문대로 직역했으며, exploited with the sauce를 “소스로 요리되어--”로 번역했다. “소스와 함께” 혹은 “소스와 더불어”가 맞는 표현이다. TT4 역시 직역의 방식을 택했다.

20) As this dark mass had been transformed from a bright and love-indorsed flower to be an ignominious vegetable, so had her summer hopes wilted and perished.

“이 거무스름한 야채가 밝고 사랑받는 꽃에서 굴욕스러운 야채로 변해버렸던 것처럼 그녀의 여름날의 희망도 시들고, 사라져 버렸다.”

TT1은 직역을 TT2와 TT3, TT4는 의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TT4의 경우, 원문의 생략된 주어가 this dark mass 이지만 이 번역은 가독성을 위해 주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정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vegetable 과 flower의 번역도 관심을 끄는데, TT2는 vegetable 을 “소찬”, TT3은 flower를 “민들레 꽃”으로 번역했다.

21) "I'd know that cranky capital W 'way above the line that your typewriter makes anywhere in the world,"

“당신의 타자기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들어내는 그 비뚤어진 W 자를 난 알아볼 겁니다.”

네 번역이 모두 가독성을 배려해서 의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통사 차원에서 번역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makes anywhere in the world이다. TT1은 makes anywhere in the world 를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두”로 해석했으며, 가독성을 배려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다. TT2는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로 역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가독성을 배려했다. TT3은 makes anywhere in the world 의 부분을 “으레”라는 단어로 함축했으며, TT4는 이 부분을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로 번역했다.

5.3. 텍스트 차원

작가가 이야기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의 번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번역자들은 이 부분의 번역을 이야기의 흐름과 연결시키기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22) Never, never begin a story this way when you write one. No opening could possibly be worse. It is unimaginative, flat, dry and likely to consist of mere wind. But in this instance it is allowable. For the following paragraph, which should have inaugurated the narrative, is too wildly extravagant and preposterous to be flaunted in the face of the reader without preparation.

소설의 도입부에 작가가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 번역은 TT1, TT2, TT3의 번역자의 경우 모두 직역 처리를 했으며, TT4의 경우에는 too wildly extravagant and preposterous 의 부분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으로 대치했다.

23) Think of a New York girl shedding tears on the menu card! To account for this you will be allowed to guess that the lobsters were all out, or that she had sworn ice-cream off during Lent, or that she had ordered onions, or that she had just come from a Hackett matinee. And then, all these theories being wrong, you will please let the story proceed.

TT1은 Think of a New York girl shedding tears on the menu card!의 번역을 생략했다. 마지막 부분 And then, all these theories being wrong, you will please let the story proceed.의 해석에서 TT4는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를 진행해야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라고 의역했다. 나머지 세 번역자는 직역의 방식을 선택했다.

24) It is not difficult to open an oyster with a sword. But did you ever notice any one try to open the terrestrial bivalve with a typewriter? Like to wait for a dozen raw opened that way?

독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번역이 있다. TT1의 경우 “보신 일이 있는지?” TT4의 경우 “본 적이 있으신지”로 번역했다. 모두 직역의 방식을 취한다.

25) (In writing your story never hark back thus. It is bad art, and cripples interest. Let it march, march.)

Let it march, march의 번역에서 TT1(“앞으로 나아가야지, 앞으로”)과 TT3(“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자”)의 번역이 독백체의 번역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TT2(“그냥 앞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좋다”)와 TT4(“전진, 계속 전진하게 봐주어야 한

다”)의 경우 서술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26) Madam, I dare you to smile until you suffer this test:

TT1은 직접화법으로 높임말을 쓰고 있다. TT2와 TT4 역시 직역으로 작가와 독자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TT3(“사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성 독자 여러분은 아마 웃을 지도 모른다.”)은 간접화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7) Oh, yes; you would, just as she did!

Oh, yes 의 부분을 직접 화법으로 처리한 번역은 TT1, TT2, TT4이며 TT3(“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러리라!”)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문장과 함께 연결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원문의 번호	TT1	TT2	TT3	TT4
1(의미차원)	보침	의역	보침	보침
2	직역	직역	의역(주해불입)	직역
3	의역	의역	의역	의역
4	직역	직역	의역	의역
5	축약	축약	보침	축약
6	생략	직역	보침	의역
7	직역	직역	생략	생략
8	직역	의역	의역	직역
9	보침	보침	보침(주해불입)	보침
10	의역	의역	직역(주해불입)	직역
11	직역	직역	직역	직역
12	직역	직역	직역	직역
13(통사차원)	직역	직역	직역	의역
14	직역(일부생략)	직역	직역	직역
15	직역	직역	의역	직역
16	직역	직역	직역	의역
17	직역	직역	의역	의역
18	직역	직역	의역	의역
19	직역	의역(오역)	직역(오역)	직역
20	직역	의역	직역	의역
21	의역	의역	의역	의역
22(텍스트차원)	직역	직역	직역	의역
23	직역(일부생략)	직역	직역	의역
24	직역	직역	직역	직역
25	직역	의역	직역	의역
26	직역	직역	의역	직역
27	직역	직역	의역	직역

표2: 네 편의 TT의 번역 방식 서술

6. 개별 번역물의 번역 현상

TT4의 번역을 제외한 TT1, TT2, TT3의 번역이 모두 ‘외현적 번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의미라든가, 문장의 연결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기지 않은 채 일부 내용을 첨가한 것은 있지만 대부분 의미 전달을 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번역자가 의미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각 번역물의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에 출판된 TT1의 번역의 경우 의미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hall bedroom 을 그냥 침실로 번역한 경우라든가, --before they can welcome the Lady in Green, the day of the week , Think of a New York girl shedding tears on the menu card! 등의 번역을 생략했다. 또한 원문을 그대로 옮긴 부분 중에서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세상은 굴과 같은 것이니 그것을 칼로 열어보겠다고 선언한 신사는 격에 넘치는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 대지가 가장 가려 뽑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즐거운 소식이 대지의 새로운 새 색 씨에게서 직접 날라 들기도 한다” “까스 나오는 것이 좀 나빠졌다” 등의 번역에서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의역 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flute을 “통소”로 번역하거나, The Cloister and the Hearth를 “암자와 난로”라고 번역한 부분이다. 이 경우 단순히 현대의 언어 현상을 기준으로 번역의 질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텍스트의 번역본을 연구할 경우 TL의 끊임 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각 번역물의 시차가 클수록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Toury 73).

TT1의 번역 현상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번역이며, 번역의 오류 부분과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무려 반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료나 사전과 같은 번역 도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번역이다. 50년대 후반기에 비로소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번역을 맡게 되었으며, 우리말을 다루는 그들의 솜씨가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전공 언어의 실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김병철 25).

1967년에 출판된 TT2의 경우 TT1의 번역보다는 가독성을 고려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Hackett matinee 를 “짜구려 극장”으로, Let it march 를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로 번역한 것 등이 그것이다. 오역으로 의심되는 표현도 있다. 예를 들면 “요전까지도 푸른 언덕에서 희롱하던 양새끼들은 그 희롱도 눈에 선하게 사탕에 저러서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와 같은 문장이다. 그러나 TT1의 번역에 비해서는 오역도 현저하게 줄었고, 문장의 흐름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 책이 출판되던 1967년경에는 “1960년대의 10년간은 빠른 속도로 번역문학의 르네상스적 개화의 현상을 이 땅에 도래”한 시기였다(김병철 25).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TT1과 TT2의 번역이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2003년에 출판된 TT3의 번역은 위의 두 번역 보다는 무려 40년 이상의 시차를 보여준다. 외현적 번역의 틀에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번역자 주해를 사용한 점이 다른 세 번역과의 차이점이다. 번역문에서는 가능하면 원문에 가감하지 않고, 따로 다섯 개의 주해를 달아서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 했다. ST 문장의 구문을 바꾸거나 원문에서 구(句)로 표현된 부분을 문장으로 처리하는 등의 형태적 변화를 보인다. 특히 화자가 독자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한 부분의 번역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TT3의 번역자는 이 부분의 번역을 전지적 작가시점의 형태로 묘사하려고 했다. 이는 번역자가 현대의 단편소설의 서술 방식에 따라 번역했음을 보여준다.

2007년에 출판된 TT4의 번역은 다른 세 번역에 비하면 원문의 형태나 내용에 고착되지 않은 채 비교적 자유로운 번역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킷 극장에서 슬픈 조조 영화” “아닌 밤 중에 흥두께”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소외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속살거리는 소식이” 등의 번역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번역 방식이 원문의 의미와는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는⁹⁾ 경우도 있

9) 예를 들면 She knew no more shorthand than if she had been a graduate in stenography just let slip upon the world by a business college를 “그녀는 속기를 할 줄 몰랐다. 속기술 전문 학교라도 졸업했다더라면 학교에서 배운 실무 기술 덕분에 세상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을 것이다” As this dark mass had been transformed from a bright and love-indorsed flower to be an ignominious vegetable, so had her summer hopes wilted and perished를 “환한 사랑을 입증해주던 꽃이 수치스러운 야채가 되어 이 칙칙한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름날의 희망도 시들어 침몰했다”의 경우이다.

다.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한 경우도 다른 세편의 번역보다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원문의 충실성에 따르기보다는 자유로운 번역 방식을 보여준다.

7. 네 번역물의 단계별 평가

7.1. 의미 차원

이 작품의 번역자들이 ‘보침’과 ‘의역’, ‘생략’, ‘주해 설명’ 등의 번역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문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번역자 자신이 원문의 언어적 해석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원문 의미에서의 이탈 상태로만 번역의 품질을 정의할 수는 없다.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에서 TT가 ST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번역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선불리 오류로 분류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번역의 목적과 ST에 충실하도록 문화, 기능, 기술의 차원에서 역동적인 평가를 추구하며 자연스러운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번역자들의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근희 2003: 25).

각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TT1과 TT2의 경우 ST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직역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직역의 전략은 안이한 선택일 수 있다. TT의 독자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TT3의 경우 보충해서 첨가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TT의 특징은 번역자가 주해를 붙여서 번역본 독자의 의미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TT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하우스 역시 외현적 번역의 문제 해결로서 주해의 삽입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번역자가 의미의 올바른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T4의 번역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도착 언어의 관용 표현이라든가, 의미 전달을 위해서 원문을 과감하게 해체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환한 사랑을 입증해주던 꽃이 수치스러운 야채가 되어 이 칙칙한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름날의 희망도 시들어 침몰했다“의 번역이다. 이는 TT를 마치 원본처럼 읽히게 하려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7.2. 통사 차원

도표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TT1과 TT2의 경우 직역의 방식이 많다. 특히 TT1의 경우 직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TT2와 TT3의 번역으로 옮겨올수록 의역의 방식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현대로 옮겨옴에 따라 번역자가 의역의 방식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가 점차 독자의 가독성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도 충실성과 가독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역자는 문장과 문단의 길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ST의 형식을 따르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은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다”(전현주 2006:198-9).

이 TT들이 출판 번역임을 감안한다면 문학 번역에서 통사의구조의 변화는 한층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출판 번역의 중심 가치는 의미, 문체, 구조 등의 충실한 전달보다는 번역서 독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가독성을 출판 번역의 중심 가치로 여기게 된다”(강지혜 29). 출판 번역에서는 ST의 유형, TT 독자, 번역물 유통의 시기 등이 번역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7.3. 텍스트 차원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시도한 부분의 번역 방법에서도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T3과 TT4의 번역자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기보다는 단편 소설의 전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원문을 가능하면 자연스런 표현으로 옮기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작가가 개입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가능한 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번역했다. 이는 원문의 생산 시기에 발생했던 오 헨리 특유의 소설 작법을 현대의 소설 장르에 맞추려는 번역 방식을 보여준다.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TT1의 경우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이야기 중에서 여성 독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높임말을 사용했다. 윌터가 새러에게 전달하는 말에도 높임말이 포함되어 있다. 서술 부분에 높임말을 혼용한 것은 글 전체의 응집력을 손상시킨다. TT2는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를 사용했다.

독자와의 대화 역시 최대한 간략한 문장을 사용한다. “이런 투로 서두를 시작해선 못 쓴다”의 번역처럼 다소 명령조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미의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두는 없으리라” “상상해보라!”의 번역이 그런 경우이다. TT4의 경우는 네 편의 번역 중에서 문장이 가장 긴 편이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났지만 원작이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또한 TT4는 원작의 줄표를 번역에서 그대로 살리지 않고 번역하는데, 이는 ST의 형식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슐렌버그가 새러에게 보여주는 호의를 TT의 독자에게 부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¹⁰⁾

흔히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여성과 남성 사이의 높임말 쓰기에서 일정한 양식이 있다. 연인 사이일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높임말을 쓰고, 남성은 낮춤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 남녀 사이의 높임말 쓰기의 통념에 근거한 것이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남녀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번역에서 TT1은 이런 통념대로 새러는 월터에게 높임말을, 월터는 새러에게 낮춤말을 쓰고 있다. TT2, TT3, TT4의 경우는 새러와 월터가 서로 높임말을 쓰고 있다. TT1의 경우는 TL이 통용되는 문화권의 어법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T1의 번역에서 월터가 새러에게 했던 다섯 번의 대사 중 세 번은 낮춤말, 두 번은 높임말을 사용하고, 새러는 월터에게 모두 높임말을 사용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음식점 주인인 Schulenberg의 이름을 우리 말로 옮기면서, 네 편의 번역이 모두 이름 뒤에 “씨”를 붙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주인 남자를 그냥 이름만으로 호칭하기에는 인물을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10) 예를 들면 ... a waiter -- an obsequious one if possible--의 번역을 TT4는 줄표 없이 “될 수 있으면 사근사근한 웨이터”로 표현했다.

8. 결론

원문의 의미해석에서 TT1과 TT2는 직역 요소와 ‘번역투’¹¹⁾의 번역문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TT3과 TT4의 경우는 TT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T3은 번역자가 주석을 달아서 본문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으며, TT4는 원문에 없는 내용을 본문 중에 첨가해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려고 했다.

복문의 번역 역시 최근의 번역물은 ST의 문장 형식을 TT에서 고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의 문장을 분할하거나 통합하기도 하고, 구(句)로 처리된 부분을 문장으로 전환해서 번역한 부분도 있었다.

텍스트 차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60년대에 번역된 두 편의 번역은 작가와 독자와의 직접 소통을 TT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반면 2000년대에 출간된 TT의 경우는 가능하면 화자의 개입 부분을 텍스트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는 동시대 소설 장르의 전형을 따르려 한 번역이다.

원문예의 충실성과 TT 독자의 가독성 사이의 선택은 ST의 유형이나 TT가 통용되는 시대 상황, 그리고 그 TT의 독자층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ST는 일정하지만 TT는 그것이 통용되는 시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 그리고 독자의 취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한다.

ST의 유형과 번역 방식에 관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ST의 유형이 표현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번역 방식은 외현적 방식이다¹²⁾. 그러나 출판 번역의 경우, 좋은 번역품질의 정의는 반드시 원문의 충실성 여부에만 있지는 않다.

번역물 평가의 해석과 규범의 틀이 사회, 문화적 상황과 그 번역물이 통용

11) “어떤 글에 원본이 아닌 번역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텍스트상의 특징” (김정우 61)

12) 하우스는 외현적 번역을 원본이 아닌, 명백한 번역 느낌이 나는 것으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이해 방식으로는 주해 첨가를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언어/텍스트 차원, 언어역, 장르에서 등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는 이를 ‘두 번째 기능적 등가’라고 칭했다.

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번역물에서 드러나는 문화 표현과 텍스트의 현상은 결국 번역물이 통용되는 시대와 그 시기의 문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네 편의 번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번역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7.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1. 7-36.
-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상』 서울: 을유문화사.
- 김정우 2007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진단에서 처방까지」. 『번역학연구』 8-1. 61-82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 연구』 4-2. 5-27.
- _____. 2005.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1. 179-205.
- _____.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 연구』 9-1. 215-58.
- House, Julian. 2001. ‘How do We Know when a Translation is Good?’ (eds) Steiner, Erich & Yallop, Colin. *Exploring Translation and Multilingual Text Production: Beyond Context*.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27-60.
- Leuven-Zwart, Kitty van. 1989. 'Translation and original: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 *Target 1:2* 151 - 81.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Benjamins.

분석대상 텍스트

- 오 헨리. 1960. 「메뉴 위의 봄」 김신혜(번역). 『오 헨리 선집: 인생유전』 서울:

동학사. 199-212.

오 헨리. 1967. 「봄철에 생긴 일」 황동규(번역).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 평화출판사. 177-88.

오 헨리. 2003. 「식탁에 찾아온 봄」 김옥동(번역). 『오 헨리 단편선』 서울: 이레. 126-41.

오 헨리. 2007. 「봄날의 메뉴」 김정란(번역). 『오 헨리의 봄날의 메뉴』 서울: 대교베텔스만. 49-62.

O. Henry. 1899/1945. ‘Springtime à la Carte’ *The Best Short Stories of O. Henry* New York: Random House. 39-45.

[Abstract]

**The Lexical, Syntactic, and Textual Assessment in the Translations of
'Springtime la Carte'**

Park, Oeksue
(Yeungnam University)

The objective assessment of a translation should analyze the source text based on its functional aspects and the author's intention, and find out the translator's method and the target text's likely readership. An linguistic approach is one of main methods to achieve those elements. It is a basic means for translation assessment based on text or text-type, one of which this paper has adopted as a tool for analyzing and describing the target texts.

This paper analyses and describes four target texts of *Springtime la Carte* written by O Henry, which have been translated in chronological order. They have a time difference of forty years between the oldest translation and the newest o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 analyzing method, the Junliane House's Model, and to provide information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future translation quality with the result. The target texts are analyzed, and their own features are described, then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the translators are examined.

As for the assessment method, the three-dimensional assessments are carried out between the source text and the target texts, and the status of the target texts are defined. In specific details, the analysis is made in three levels; lexical, syntactic, and textual level. In the micro rank, lexical and syntactic level are analyzed while in the macro one, the textual level is done.

The terminology and analyzing structure of the related texts are adopted from 'a functional-pragmatic model of translation evaluation' devised by Juliane House.

▶ Key Words: translation, assessment, function, lexical, syntactic, textual

박옥수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ocksue@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평가, 번역학 커리큘럼, 오류 분석

논문투고일: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